

연중 제 29 주일
(전교주일)

기도서 460 면(B해)
 제1독서: 이 사 53, 10-11
 제2독서: 히 브 4, 14-16
 복음: 마 르 10, 35-45
 후 10, 42-45

숲 정 이

천주교 전주교구 홍보국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러 온 것이다.

(마르 10, 45).

강론



모두가 내 탓입니다

김 동 준 신부

뿌릴 씨앗과 가꿀 땅이 없이 4월을 맞는 사람에게 4월이 잔인한 달이라면 오곡의 결실을 추수하는 10월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10월은 잔인한 달일 수 밖에 없으리라...

10월은 전교의 달이다. 전교는 주님의 뜻에 따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며 존립의 이유이다. 신앙인 모두는 진지하게 믿음의 결실을 해야 할 일이다.

소화 테레사와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천명한 전교의 주보이다. 두분의 삶은 유난스럽게 대조를 보인다. 소화 테레사는 깔짚 봉쇄 수녀원에서 24살로 세상을 마쳤고 프란치스코 사베리오는 제2의 사도 바울로 처럼 인도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전교 활동을 하시다가 35살의 나이로 중국의 「상찬도」라는 섬에서 세상을 마쳤다. 한분은 울타리가 넓다고 생각하시며 겸손과 복음적 단순함으로 작은 꽃처럼 사셨고 한분은 세상이 좁다고 생각하시며 불꽃처럼 활동적으로 사셨다. 그러나 두분에게 공통된 삶의 목표는 죄인의 회개와 하느님의 기쁜 소식이 모든 사람의 가슴속에 한알의 씨앗으로 뿌려지기를 소망했다. 신앙과 열정에서는 꼭 닮은 분들이 아닐 수 없다.

교회의 뜻은 두분 중의 한분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두분의 신앙과 열정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도록 바라는 것이다. 전교의 장에서 되는 것은 바쁜 일과나 혹은 물질적 가난이나 불편한 병상의 생활이 아니다. 오히려 말씀에 대한 무지로 복음적 가치와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경우와, 세상의 주의주장에 쫓대없이 휩쓸리는 생활, 경건치 못한 품행, 이기적인 인색함, 기도가 없는 생활, 적정한 교리교육의 미비, 일치와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사목자와 신자들의 관계 등이 문제가 된다. 요즘은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현실이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서로 샅대질할 하며 탓을 돌리는 한에는 문제는 더욱 심각할 뿐이다. 모두가 내 탓을 인정하고 서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때 가능하다. 전교의 사명은 믿는 사람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지금은 내 탓을 확인하고 둥글게 손을 맞잡을 때이다.

전교는 자기 성장의 확인이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일이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1고린도 9, 16). 풀벌레 소리가 청아한 이 가을에 사도 바울로의 이 말씀을 귀를 씻고 들을 일이다. (사목국장)

소리 우뚝 선 동상

—마카오에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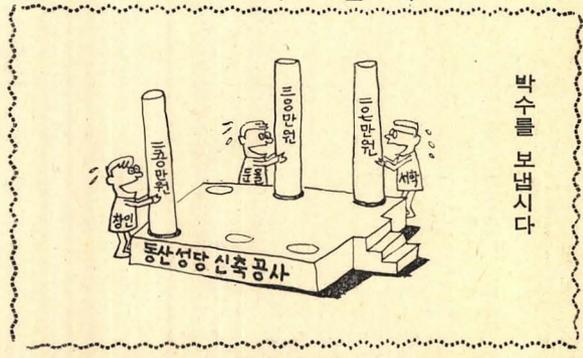
지난 10월 4일 마카오에서는 성 김대건 신부님의 동상 제막식이 있었다. 이날 김수환 추기경은 인삿말을 통해서 "성 김대건 신부님의 동상이 중국대륙을 바라보며 세워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 외국땅에 한국인의 동상이 세워진다는 것만도 드문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다가 140여년전에 그분이 걸어온 중국땅을 향해서 세워졌다는 것은 이 시대의 새로운 징표가 아닐 수 없다.

제막식에 앞서 봉헌된 미사에서 김남수 주교는 "중국대륙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강론했다.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성덕과 열성, 굳은 믿음을 본받아, 선교사들을 한국에 모시는 일을 최고의 보람으로 아셨던 그분의 뜻을 따라 사제 성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제양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주땅에서 추수할 일꾼을 고대하고 있는 임인교 신부(76세, 전주교구 소속)의 애절한 소망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 교회공동체, 특별히 평신도들이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가 되기 위해서 난관이 넘게 걸었던 길을, 동상 제막식에 참가한 순례단은 한나절 남짓한 시간에 비행기와 배를 이용하여 당도할 수 있었다. 140여년이 가져다 준 역사와 문명의 혜택이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좋아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큰 성숙을 보이고 있는가! 부끄러움이 앞설 뿐이다.

300년대에 접어든 한국 천주교회, 그리고 한국 최초의 방인 자치교구로 설정된지 50년을 향하는 전주교구, 얼마나 많은 성장을 말할 수 있는가! 이 전교의 달에 우리 모두 말없이 자신을 되돌아 보며, 서 말 밀가루를 부풀게 할 누룩이 되어 내 이웃에 파고 들어야 한다.

숲 정 이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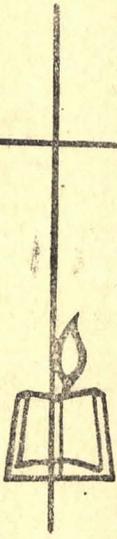
박수를 보냅니다

성서교실 28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마르 10:21)

「부자청년」(10:17-22)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 부자청년은 큰것을 놓고, 그것을 거절하였다.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10:22). 예수의 최후 명령이 그에게는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그래서 그는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던 것이다. 한편 우리는 그의 「정직함」과 영원한 생명을 구하려는 진지한 영혼의 「자세」를 본다. 그러나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에게 힘있게 달려왔던 그는 이제 풀이 죽어 돌아가는 모습, 그것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청년은 「구두쇠」로서 하나만 알고 백가지를 모른채 애석하게도 「홍정」을 거절하고 말았다. 이것은 전(全) 우주를 거절할 정도의 참으로 애석한 「거절」인 것이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예수는 물론 「선한 선생」이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善)하다」라는 뜻이든지 아니면 「은총이 충만한」, 「자비심이 깊은」(아가토스=트트)라는 뜻이든지 상관없다. 청년의 오류는 영원한 생명이 유일의 「선하신 분」, 「완전하신 분」인 하느님의 자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지 못함에 있었다. 그는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그에게는 신앙이 없었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요한 6:29). 한편 「부(富)」 그 자체는 인인을 거스리는 것이다. 예수는 여기서 인인에 대해 해당하는 6가지 조목을 환기시켰다. 사실 율법 전체가 인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마태 7:12)이다. 율법 하나가 깨어지면 전체가 깨어지는 것이다(야고 2:10-11). 예수가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이자에게는 확실히 그것이 있었다. 이것은 「명령」이지, 「복음적 권고」가 아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은 예수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것은 세상과 자기 포기에 있다.



**** 관심과 정성을 기대합니다 ****

우리는 지난 8월에 교구설정 50주년기념 중앙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안 수립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시도를 제시하고 준비를 해왔다.

50주년을 보다 뜻깊게 맞이하고 이를 계기로 교구의 발전을 다짐하면서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상을 정립, 사회에 봉사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하면서 관심과 정성을 기대한다.

지난 8일 제모임을 갖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보았다.

- 50주년 기념주년을 시작하는 첫날에 교구적 차원에서 기념행사를 갖는다.
 - ①일 자—1985년 11월 30일(대림 첫주일전 토요일) 오후 2시
 - ②장 소—천호 성인의 묘역 광장
 - ③참가대상—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각 본당 평신도 대표 40명 내외
- 새로 단장된 3분의 성인과 10명의 무명순교자 묘지 축성식을 위 행사와 동시에 실시한다.
- 50주년 기도문을 작성하고 기도문 끝에 교구 주보성인(7인)의 이름을 호칭키로 한다.
- 50주년 기념사업 소요예산(5개 신설본당 신축비는 예외)은 4억원(신자부담 3억원, 기타 찬조금 1억원)을 상한선으로 한다.
- 50주년 기념사업의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숲정이 주보에 특별난을 두어 각 본과의 업무진척 사항을 홍보한다.
- 표어의 선정 및 기념마크 제작은 50주년 사무처에서 의견을 수집하여 제작토록 한다.

교사 초빙 안내

- 초빙과목 : 국어, 영어, 수학, 역사, 지구과학, 체육, 일어 여자교원, 윤리(강사), 농업(강사)
- 응시자격 : ①사립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없는자 ②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자(남자)
-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소명합판 사진 첨부) 1부 ②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③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제출기간 : 198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6일까지
- 제출처 : 정주고등학교 서무과 전화 0308 560 정주시 금봉동 산 130-4번지 학교법인 중삼학원

웨딩드레스·

약혼복 드레스 대여

금수 웨딩드레스 미용실

신부화장·파마·맛사지·부케
신부야외촬영·비디오촬영
(신자분은 특별 할인함)
전주시 경원동 관동로변
민정회관과 소서빌딩 사이
☎ 2-8507
주. 박 영 숙(주리아)

□마춤·대여□

신부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
비디오촬영·페백의상·
신부부케·야외촬영
광릉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6951
정인기(논지도)
최영자(헬레나)

교 구 소 식

- ☆ **축! 견진**: 노송동천주교회, 27일 공식미사 중, 주례-박정일 주교님
- 1. **교구 사제 연례피절**: 22일 오후 5시~26일 오전 10시, 장소-솔피 피정의 집
※ 신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2. **10월중 교미씨움 회의 개최**: 일시-20일 오후 2시, 장소-전동천주교회
참석범위-각 꾸리아 간부 전원, 직속 브레시디움 간부 전원
- 3. **특별 성령 쇄신 세미나**: 10월 19일~11월 30일(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장소-중앙성당, 회비-3천원, 접수-중앙성당 사무실
- 4. **사제 어머니 모임**: 10월은 섭니다
- 5. **M·E 10차를 위한 다리과정**: 27일 가톨릭센터에서
- 6. **성 프란치스코회(방ziger 3회) 전북지구 형제회 주관 1일피절**
26일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노송천주교회, 회비-1천원
강사-프란치스코회 한국연합회 전국지도신부 김창재 신부, 회장 박상배(광주 신대교수), 꽃동네 오용진 신부
- 7. **제 5기 홀민강좌**: 일시-10월 28일~11월 1일 매일 7시~9시, 장소-가톨릭센터 회의실, 대상-만 19세 이상 미혼 남·녀 및 젊은 부부, 준비물-필기도구·성서, 수강료-3천원(한쌍은 5천원), 특전-혼인 참고 면제·수료증 수여
- 8. **성소자 선발**: ①모집일시-10월 21일까지, ②선발대상-학구가 편제되지 않은 지역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 ※ 자세한 내용은 교구청 교육국 (☎0041~3)에 문의바람

(축) 은 경 축

황 인규(마태오) 신부님의 사제서품 2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10월 28일 김제 요한성당 축하미사-11시

♣ 잠 간!

진리의 목소리-Radio Veritas를 아십니까?

수많은 방송들이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시아를 사로잡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와 신념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다.

아시아의 크고 작은 수많은 방송국들 그중에서 라디오 베리마스 아시아는 아시아 유일의 가톨릭 방송국으로 필리핀 마닐라에 자리잡고 있다. 가톨릭 신앙을 아시아인들에게 전해주는 일, 나아가 중국, 베트남, 북한 등과 같은 침묵의 교회에까지 닿게 하여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하고 간접적인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교구사제 김태훈 신부님과 성바오로 여자수도회 수녀 2명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어 방송은 매일 오전 7시~7시 25분, 오후 9시 30분~9시 55분까지 방송되며 주파수 오전 9,740 / 9,585MHZ 오후 9,550 / 11,830MHZ로 방송하고 있다.

또한 더 알찬 방송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듣고 수신보고서를 다음 주소로 보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 내: 우편번호 100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16호 가톨릭 매스컴위원회
필리핀: KOREAN SERVICE / RADIO VERITAS ASIA
P.O BOX 939 / MANILA, PHILIPPINES.

라디오 베리마스 한국어 방송시간 안내

- 월: 오전-청취자코너(재)·말씀과 함께 하루를(재), 오후-자, 함께 다리를 놓아요.
- 화: 오전-바로 지금입니다(재)·한국 가톨릭소식, 오후-아시아의 이모저모·세계 가톨릭소식. 수: 오전-자, 함께 다리를 놓아요(재), 오후-영가의 세계·오분드라마.
- 목: 오전-아시아의 이모저모(재)·세계 가톨릭소식, 오후-그대 젊은이여!·세계 가톨릭소식. 금: 영가의 세계(재)·말씀과 함께 하루를, 오후-청취자코너·한말의 밀알
- 토: 그대 젊은이여!(재)·세계 가톨릭소식, 오후-바로 지금입니다·한국 가톨릭소식
- 일: 오전-주님과 함께, 오후-주님과 함께

요심이 (637) 김병오



—성인병은 치료보다 예방—

영지! 영지! 영지!

◎ 2천년도 훨씬 전부터 선초라고 해서 만병에 사용되었다. 때로는 불로장수의 약이라는 전설까지 생긴 이상한 나무 새끼들.

—보건신문 83년 2월10일자— 불로초 '영지'의 베일을 벗긴다에서

- ◎ 영지의 효능
 - *암 *당뇨 및 간염예방
 - *동맥경화·고혈압·중풍·어혈
 - *위와 장질환
 - *관절염 및 신경통
 - *기관지염 및 간기능강화
 - *기타 성인병과 노화방지
- ◎ 봉사하고 있습니다
 -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값도 싸고 양도 더 드립니다
 - *포장된 선물용도 있습니다

월성 영지농장

이리시 월성동
(글라라 봉쇄 수녀원 앞)
☎ 4773 · ②8953
강 영 순(제노베파)

대우전자 비디오 테프 특약점
교육용, 성서용 각종 프로 테프 판매 대여

영진비디오

결혼 회갑 각종 문화행사 특수 촬영
☎ ② 4 0 9 4 전주백화점 옆
채 석 자(글라라)

미영칼라현상소

칼라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씨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 ③ 3651 · 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점범전(토마스모어)
이영의(투리포니아)

제 1 지구 각 본당소식②

(노송동) 사제관 6-0969 주임신부 김 용 태
수·사 2-7032 보좌신부 김 의 철
아파트 75-6389 사도회장 이 흥 재

1. 전주교구 신부님들 피정: 22일~26일까지, 솔피성지 많은 기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피정동안 본당미사 조정-22일 오전 10시30분, 23일~25일까지는 아침 6시미사만 있습니다. 26일에는 아침미사 없습니다
 2. 견진식: 다음주(27일) 공식미사 중에 대부모님과 함께 오전 9시30분까지 성당에 나오세요 견진 받으실 분은 성사보세요, 평일미사 전·후에 성사 줌
 3. 본당 꾸리아 회합: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5. 본당의 날 행사와 보좌신부님 영명축일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6. 천자올겐 기금 납부합니다
김순자·김양선씨-각 1구좌, 현금누계-1,642,000원
 7.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8. 공소회장단 회의 연기: 29일 오후3시, 왕정공소에서
 9. 공소 순회미사: 26일 저녁 8시, 다리리공소
 10. 금주전례: 제1조, 차주는 제2조가 담당입니다
- 지난주 봉헌금: 421,741원 교무금: 243,000원
신축기금: 130,000원

(복자) 사제관 75-0592 주임신부 권 영 균
사무실 2-5238 사도회장 김 성 현
수녀원 "

1. 사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2. 신부님 피정: 22일~26일, 솔피 피정의 집
 3. 유아세례: 26일 저녁미사 후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4. 전례위원 모임: 20일 공식미사 후(유덕열·김인식·최정순·황만금·정운주·최희숙·김재식·이기배·송세란·박영숙·김경자·이난희·서미옥)
 5. 주일학교 축구부에 추리닝 11벌 기증
박엘리사벳씨 감사합니다
 6. 오늘은 전교주일: 특별헌금 있음
 7. 금주 성당청소: 월-다위의 탐pr, 토-셋별pr
차주 청소담당: 월-사도의 모후pr
토-사비의 모후pr
 8. 금주전례: 해설-정운주, 독서-①이기배 ②김운자
차주전례: 해설-이기배, 독서-①정동민 ②이갑진
- 지난주 봉헌금: 180,430원 교무금: 445,750원

(상관) 사제관 79 주임신부 김 영 신
사무실 사도회장 이 정 우

1. 청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2. 청년회 봉사활동: 본당 미화작업
 3. 유아세례: 27일 공식미사 후
 4. 신부님 피정: 22일~26일 이 기간중 말씀의 전례 있습니다
 5. 본당 우정의 날: 30일 저녁 추수 감사 농산물 나눔의 잔치
 6. 치과진료: 27일 공식미사 후
 7. 오늘은 전교주일: 2차헌금 있습니다
 8. 금주전례: 해설-이옥동, 독서-강덕용·유순천
봉헌-이정우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안현주, 독서-김병주·문병주
봉헌-한동산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15,420원 교무금: 30,000원

(서학동) 사제관 2-8307 주임신부 김 반 석
사무실 " 사도회장 김 낙 균
수녀원 2-2276

1. 신부님 피정: 신부님께서 22일부터 26일까지 많은 기도 바랍니다. 미사예를 바치실 분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사항은 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2. 지난주일 동산촌본당 신축헌금(557,861원)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뜻대 외상으로 구입하신 분께서는 속히 사무실에 납부해 주시기바랍니다
3. 혼배성사: 혼배성사를 받으실 분은 늦어도 2주일 전에 신부님께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4. 견진성사: 아직도 견진성사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이번주일 안으로 속히 신청 바랍니다
견진교리는 28일~11월 2일 저녁 8시에 신부님께서 지도합니다. 고백성사 받으실 분은 이 기간동안 꼭 보시기 바랍니다
5. 사제양성 후원금 신입하신 분께서는 속히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다음주 전례

미 사	해 설	1 독서	2 독서	기 도
첫 미사	최창림	김길석	김숙임	윤 정 순
공식미사	김광수 오정희	박경환	박종순	치명자의 모후
저녁미사	진경선	조정웅	손옥연	김 청 운

□ 지난주 봉헌금: 557,861원 교무금: 313,000원

(전동) 사제관 6-6208 주임신부 김 치 삼
사무실 2-3222 보좌신부 김 기 곤
수녀원 2-8347 사도회장 김 병 오

1. 성화회: 공식미사 후
 2. 피미시움: 오늘 오후 2시
 3. 전동 울드레아 성지순례: 26일 오전 8시출발(시간업수), 20일까지 접수 바람
 4. 부활반 예비신자 안내
학생-토요일 오후 4시30분
청년-수요일 오후 7시30분
일반-일요일 오전 11시
 5. 수세식 확장실 공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5만원-익명, 3만원-서영봉·최명숙·이재진, 2만원-신수이, 1만원-임삼배·홍성숙·이연순·성열근,
5천원-문복수, 3천원-조옥순
 6. 미사시간 변경 안내: 주일·평일-저녁미사 오후 7시
 7. 다음주 봉헌 담당: 김용욱 부부
 8.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해설-기정희, 독서-①최정식 ②이주영
공식미사: 해설-양현홍, 독서-①배한수 ②고수창
- 지난주 봉헌금: 933,720원 교무금: 194,000원

(호자동) 사제관 75-3841 주임신부 박 중 신
사무실 2-0915 사도회장 이 교 성
수녀원 2-4804

1. 전주교구 사제피정: 22일~26일 화~금요일까지 본당미사 없음
 2. 축! 대견회 탄생: 회장-양상환
부회장-박희, 총무-유재창
 3. 성지순례: 충남 솔피-해미
준비물-①성가책 ②목주 ③도시락(간식은 제공함)
 4. 성모회·본당 울드레아: 오늘 공식미사 후
 5. 유아세례: 11월 3일
 6. 은혜의 밤(철야기도회): 26일 밤 10시~4시30분
 7. 축! 결혼: 27일 12시
신랑-정운용, 신부-백분숙(헬레나)
27일 오후 1시
신랑-박정희(프란치스코), 신부-김미자
 8. 건축헌금(납입자): 30만원-김홍두, 10만원-김형호·박희·익명 ①(타분당)·익명 ②(타분당), 7만원-서금순, 2만원-김문현·문금례, 1만원-김성실·탁순남·박종복·신정남·오복욱
- 지난주 봉헌금: 437,180원 교무금: 363,000원
건축헌금: 860,000원